

# 청소년의 우울이 온·오프라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남은정(상명대학교)\*\*

배희분(상명대학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이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하여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2013년 조사자료 중 대상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중 1 패널 4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우울은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우울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온·오프라인 비행을 증가시키는데, 온라인비행보다는 오프라인비행에 대한 매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이 증가하면 사회적 위축도 증가하며 이에 따라 온라인비행은 증가하지만 오프라인비행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이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하여 온·오프라인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청소년비행 예방 및 효율적인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갖는다.

★ 주제어: 청소년 우울, 온라인비행, 오프라인비행, 공격성, 사회적 위축

## I. 서론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발생 이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청소년 폭행사건이 연속 보도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소년법 폐지 청원 등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상명대학교 상명가족아동상담교육센터 상담원

\*\*\*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조교수(heeboon@smu.ac.kr)

청소년비행은 오프라인비행과 온라인비행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오프라인비행은 사회적 법규나 규범 및 학교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폭행, 절도, 음주, 흡연, 가출 등의 현실에서의 일탈행동을 뜻하며, 온라인비행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의 사이버공간에서 저지르는 모든 유형의 범죄 혹은 비행행동을 의미한다(이성식, 2005).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로, 미성숙한 존재인 청소년이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기이다. 이 시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심각한 정서적·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좌절과 불만이 잠재하여 극단적인 사고와 과격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신명희 외, 2013), 그중 우울은 청소년기에 종종 경험되는 심리적 증상이다. 교육부 외(2018)에서 수행한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2018년 응답 청소년 전체 27.1%, 즉 4명 중 1명이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는 정도의 우울을 경험하였으며, 남학생(21.1%)에 비해 여학생(33.6%)이, 중학생(남 19.0%, 여 31.9%)에 비해 고등학생(남 22.9%, 여 35.0%)이 더 높은 우울감을 보고하였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과다수면, 체중변화, 식욕저하, 두통, 복통, 불면증 등의 신체적 증상을 보이거나 죄책감, 자기비하, 창피함 등의 정서적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경미, 2014). 이처럼 우울은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증상이며, 심할 경우 자살생각이나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신혜정 외, 2014; 장영애, 이영자, 2014).

그런데 성인기와는 달리 청소년기 우울의 많은 경우, 전형적인 우울 감정을 나타내는 대신 가출이나 반사회적 행동, 약물남용 등 다른 형태로 증상을 나타내는 이른바 “가면성 우울(masked depression)”의 형태를 보인다(강경미, 2014; 김태순, 강차연, 2008; Bemporad & Lee, 1988). 이형영(1999)에 따르면 청소년의 우울증은 슬픔이나 낙담 등과 같은 우울 증상이 겉으로 표출되는 성인의 우울증과는 달리 두통, 복통, 극심한 무력증 등의 신체증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이 어렵고, 무엇보다 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 등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오윤선, 2006; 조형정, 김명량, 조민희, 2017). 이처럼 청소년기의 우울은 개인의 감정적 기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행이나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강경미, 2014), 이에 대한 원인 및 경로 규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우울과 온·오프라인비행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이 청소년의 온라인 비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고은희, 김은정, 2014; 고은희, 황성현, 2015), 오프라인비행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김태량, 최용민, 2016; 임선아, 2015).

하지만 청소년의 우울이 직접 온·오프라인 비행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중요한 매개변수나 조절변수가 작용하는지를 밝힌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2011)는 우울과 오프라인비행의 간의 관계에 제 3의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였으나, 우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과의 관계 및 경로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변수 중 하나는 공격성이다. 이는 청소년의 공격성이 온라인비행(권정민, 2016; 김동기, 전지영, 이선주, 2008)과 오프라인비행(김지혜, 2013; 장신재, 2014; 차민규, 2014)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우울과도 관련이 높은 변수이기 때문이다(서미정, 2009; 홍태화, 황순택, 2015). 진혜민 등(2011)은 우울이 청소년의 오프라인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격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위축이 매개변수로 다루어진 연구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사회적 위축은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온라인비행을 증가시키고(고은희, 김은정, 2014; 김단비, 2016), 학교생활적응, 자살이나 비행 등의 청소년기 부적응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박기원, 2014; 양원경, 1999).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울과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과의 관계에서의 사회적 위축의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종속변수인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에 이르는 각각의 경로에도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의사소통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감출 수 있고(김재휘, 김지호, 2002), 정보의 제공과 수정 및 삭제가 자유로워 가해자를 구별하기 어려우며 국경과 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발신지와 수신지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일일이 법으로 규율하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정완, 2005).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접근이 쉽고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달 되므로 온라인비행 피해청소년은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며, 복합적이고 은밀하게 발생하므로 온라인비행 피해청소년이 자신의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이규미 외, 2014). 이러한 익명성과 비대면성, 편이성과 즉시성 및 암수성이라는 온라인비행의 특성(이성식, 전신현, 2012)으로 인해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의 경로가 다를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을 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매개변수의 효과나 경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대표적 내재화 문제인 우울이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냄으로써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비행의 실체에 한발 더 다가가고, 나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은 청소년의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우울이 청소년의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 II. 이론적 배경

우울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슬픔에서부터 신체적·인지적·정서적 장애를 가져오는 심한 경우까지 사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권석만, 2016). 우울은 ‘심리적 감기’라고 부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특히 청소년들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태순, 강차연, 2008; 교육부 외, 2018).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며, 기분의 변화가 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뿐 아니라 자기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를 꺼리고 부정적이며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더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반사회적 행동, 약물남용, 공격성, 사회적 철회, 가출 등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가면성 우울(masked depression)의 형태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우울의 특징이다(강경미, 2014; 이은선, 2006; Bemporad, & Lee, 1988; Glasser, 1966).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인 행동화 모델에서는 내재화 문제가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며, 내면화 문제로 인해 외현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즉, 내면화 문제인 우울이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면성 우울의 개념과도 연결된다(최정아, 2010). 이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켜 이후의 비행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Wiesner, 2003), 청소년들이 우울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부정과 행동화의 방어기제를 사용한 결과가 심각한 비행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Kaufman & Heins, 1958; 김윤정, 1999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Vieno 외(2008)의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이 반사회적 행동 등의 증가를 예측하였고, Kovacs(1988)의 우울과 품행장애가 공존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는 대부분 품행장애 진단보다 우울에 대한 진단이 먼저 내려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Grasser(1966)는 청소년들의 우울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가 가면성 우울증상인 자학적 행동이나 비행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들로 표출되며, 비행청소년들의 공격행위나 약물남용, 문란한 성행위 등의 행동에 가면성 우울이 내재되어 있다는 Krakowski(1970)의 주장은 행동화 모델

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우울이 청소년의 오프라인 비행을 유발하거나 촉진시키는 중요한 심리요인이며(임선아, 2015), 소년원과 분류심사원 재소 비행청소년들이 학생청소년들에 비해 우울성향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의 우울성향이 비행행동의 원인이 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김헌수, 김현실, 1997; 박우정, 정진복, 2015).

이성식, 전신현(2012)에 따르면 우울한 청소년들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이유로 사이버공간에 빠져있다가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 우울한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김금순, 김은미, 2015),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수록 온라인비행에의 개입수준이 높아진다(박미영, 2008). 청소년의 우울과 온라인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우울이 온라인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지혜, 2013; 이은선, 2006). 고은희와 김은정(2014)은 우울이 심한 청소년일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인터넷 사용빈도가 증가하여 온라인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이성식과 전신현(2012)의 연구에서도 우울한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교류하면서 정서적으로 지지받기를 원하며, 인터넷 오락을 통해 우울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은 청소년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행동문제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다양한 행동뿐만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위협적 사고 및 태도를 뜻한다(곽금주, 1992). 공격성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청소년 초기에 적절히 발산하지 못할 경우 비행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진혜민, 박병선, 배병우, 2011). Kastner(1998)는 공격성이 비행 청소년의 정서적 특징 중 가장 핵심적이고 주된 증상이라고 하였으며, 이해은과 최정아(2008)는 공격성이 청소년의 음주, 흡연, 가출 및 폭력비행을 증가시키는 촉진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장신재(2014) 또한 공격성이 음주, 흡연, 폭행, 강도와 같은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실제로 일반청소년과 소년원 재소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행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공격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심응철, 1999).

공격성은 청소년의 오프라인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비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김동기, 전지영, 이선주, 2008; 권정민, 2016),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더욱 활발히 이용할 수 있다(천정웅, 2000). 여러 선행연구들은 공격성과 온라인비행과의 관계가 정적 상관임을 나타내 공격성이 높을수록 온라인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고은희, 황성현, 2015; 임선아, 2015). 이렇듯 공격성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을 저해하고(김금순, 김은미, 2015), 약물사용이나 범죄와 같은 비행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진섭, 2009). 이처럼 공격성은 비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직접적 변수이면서 동시에 우울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 매개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진혜민 등

(2011)은 우울이 공격성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를 밝힌 바 있다. 즉, 우울한 청소년들은 공격성 수준이 높아져 비행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회적 위축은 혼자있는 상태(solitude) 즉 사회성의 결핍, 수줍음, 행동억제, 고립, 소외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Rubin & Coplan, 2004),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행동을 뜻한다(조주영, 오인수, 2014). 사회적 위축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사회부적응행동 중 내면화 행동문제 범주의 하나로(Younger & Daniels, 1992),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으로 낮은 상황에 마주했을 때 갖게 되는 경계심과 주변으로부터의 인식된 사회적 평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갖게 되는 자기 인식의 감정에 기여하는 성격 기질을 뜻하며(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특정 상황에서 혼자 있으려 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문제이다(정경미 외, 2013).

우울한 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해 친밀감을 덜 느끼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여 자신의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을 보인다(Kandel, Ravies, & Davies, 1991; 이은선, 2006 재인용). 이봉주와 민원홍, 김정은(2014)은 청소년기의 우울이 사회적 위축을 예측하는 주요요인이며, 우울한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위축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양원경(1999)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 및 철회는 신경증, 정신병, 자살, 비행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청소년기 부적응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의 오프라인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김선남(1994)은 소년원과 소년감별소에 수용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비행성향이 높아지고 이러한 비행성향은 비행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외감이 비행성향을 통해 비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위축문제를 갖는 청소년이 오프라인 비행에 개입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적 위축은 온라인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고은희, 김은정, 2014).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단비(2016)는 사회적 위축이 아동의 부정적인 문제 상황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온라인비행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웅택, 이은경(2015)의 연구에서도 위축감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외감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김은경, 2012),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 사회적 소외감이 인터넷 과다사용 수준을 상승시켜 인터넷 가상세계로의 도피와 온라인비행과 같은 인터넷 과다사용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심진숙, 2008). 소외감은 사회적 고립감이나 정체성 형성 과정과 사회화 과정이 교란된 결과로 인한 심리적 상태(심진숙, 2008)로 설명되며,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위축의 의미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사회적 위축이 온라인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소년기의 대표적 내재화 문제인 우울은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과 같은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의 오프라인비행과 온라인비행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그리고 온오프라인비행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비행 예방과 개입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년범죄의 비율이 높으며(여성가족부, 2017),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우울이 높다(교육부 외, 2018)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3년 데이터 중 중1패널이 성장하여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7년 2월말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2017년 2월말부터 6월까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중1패널의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2,108명으로 남학생이 1,075명, 여학생이 1,033명이다.

#### 2. 측정 도구

측정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사용된 척도들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각 측정도구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가. 우울

우울의 측정을 위해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관련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은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등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울의 수준을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4점 척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문항에 대해 역코딩을 하여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이 높게끔 변환하였으며, Cronbach's  $\alpha$ 값은 .89로 높게 나타났다.

#### 나. 공격성

공격성은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격성 변인도 우울 문항과 마찬가지로 4점 리커트 척도이며 공격성 문항에 대해 역코딩을 하여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게끔 변환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해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 총 5문항이며, 사회적 위축의 수준을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4점 척도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위축 문항 또한 우울과 공격성 문항과 마찬가지로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게끔 변환하였으며, Cronbach's  $\alpha$ 값은 .88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 라. 온라인비행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는 온라인비행의 측정을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온라인비행 관련 자료를 지난 1년 동안에 온라인 비행행동을 경험한 유무로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등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경험을 했으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여 변환한 모든 문항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온라인비행 변수를 설정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49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Cronbach's  $\alpha$ 값을 높이기 위해 문항수를 조정하지 않고 주어진 자료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 마. 오프라인비행

오프라인비행 척도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

용하였으며, 오프라인비행 관련 자료를 지난 1년 동안에 오프라인 비행행동을 경험한 유무로 측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담배 피우기’, ‘무단결석’,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등 총 14문항이다. 오프라인비행 또한 온라인비행과 마찬가지로 비행행동을 경험했으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여 변환한 모든 문항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비행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Cronbach’s  $\alpha$ 값은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비행 변수 또한 온라인비행 변수와 마찬가지로 문항수를 조정하지 않고 주어진 자료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3.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으로 검증하였고,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그리고 온·오프라인 비행경험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절차는 측정의 적합도를 검토하기 위한 측정모형을 추정하여 검증하였고, 다음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모수치들은 최대우도법 절차에 따라 산출되었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X^2$  통계량과 TLI, CFI, RMSEA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모델적합도 지수와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 $X^2$  검정’은 p값이 .05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X^2$ 은 표본 크기의 영향을 받아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X^2$ 은 증가하기 때문에  $X^2$ 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증분적합지수 CFI, TLI는 0.9 이상, 절대적합지수 RMSEA는 0.08이하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간주한다(Hu & Bentler, 1999).

## IV. 연구결과

### 1.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온·오프라인비행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측정변수들이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우울과 공격성, 온라인비행이 오프라인비행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이 온라인비행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80이상의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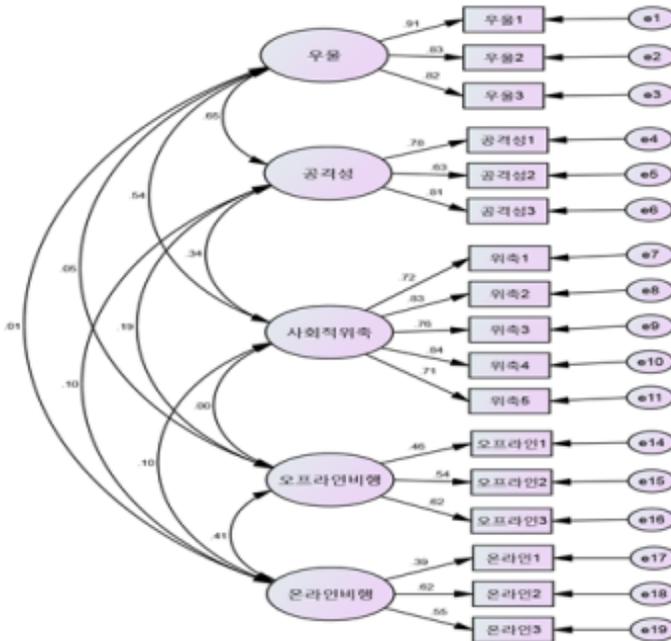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우울	우울	우울	공격	공격	공격	위축	위축	위축	위축	위축	오프	오프	오프	온	온	온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1	-	.773*	.742*	.538*	.325*	.419*	.375*	.332*	.397*	.365*	.334*	.053*	.027	-.009	-.009	-.033	.021
2		-	.656*	.497*	.328*	.409*	.339*	.283*	.359*	.300*	.310*	.112*	.032	.031	.010	-.010	.041
3			-	.453*	.341*	.398*	.448*	.436*	.467*	.449*	.421*	.034	.021	-.017	.009	.041	.046*
4				-	.440*	.622*	.261*	.188*	.212*	.201*	.146*	.075*	.045*	.036	-.005	-.001	.053*
5					-	.560*	.242*	.221*	.230*	.202*	.160*	.110*	.124*	.081*	.015	.095*	.097*
6						-	.236*	.187*	.211*	.198*	.151*	.134*	.098*	.080*	-.015	.035	.081*
7							-	.623*	.552*	.545*	.545*	.007	.020	-.020	.056*	.082*	.048*
8								-	.583*	.742*	.571*	.010	.035	-.006	.051*	.071*	.041
9									-	.645*	.586*	-.006	-.010	-.037	.030	.027	.043*
10										-	.573*	.008	.007	-.017	.030	.016	.039
11											-	-.015	-.004	.013	.037	.033	.025
12												-	.228*	.294*	.028	.105*	.114*
13													-	.335*	.095*	.145*	.145*
14														-	.104*	.131*	.150*
15															-	.250*	.199*
16																-	.334*
17																	-

\* $p < .05$ , \*\* $p < .01$ , \*\*\* $p < .001$ . 우울 ①,②,③ = 우울을 세 개 꾸러미로 제작한 것, 공격 ①,②,③ = 공격성을 세 개 꾸러미로 제작한 것, 위축 ①,②,③,④,⑤ = 사회적위축 5개 문항, 오프 ①,②,③ = 오프라인비행을 세 개 꾸러미로 제작한 것, 온 ①,②,③ = 온라인비행을 세 개 꾸러미로 제작한 것.

## 2. 측정모형분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오프라인비행, 온라인비행이 잠재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이 3개 또는 5개씩 구성되어 있다. 측정변수는 모형의 간명성을 위해 문항합산을 실시하였으며 문항합산은 구조모형검증을 실시할 때, 다수의 항목으로 구성된 측정지표를 합산하거나 평균을 구해 새로운 문항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조현철, 강석후, 2007),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문항합산 방법 중 구성개념과 항목간의 관계(item-to-construct relation)를 계산하여 항목묶음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인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 방식을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문항 꾸

러미를 설정하기 위하여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꾸러미가 잠재변인에 거의 균등한 부하량을 갖도록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였으며, 사회적 위축은 5개의 문항을 그대로 측정변수로 설정하였다<표2>. 이렇게 설정된 측정변수들이 각각의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3>과 같이  $X^2=806.776(df=109)$ ,  $CFI=.949$ ,  $TLI=.929$ ,  $RMSEA=.052$ 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표 2> 각 측정변수의 문항내용

변수	문항내용	문항수
우울 1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4
	모든 일이 힘들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울기를 잘한다	
우울 2	외롭다	3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우울 3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3
	기운이 별로 없다	
	걱정이 많다	

공격성	공격성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2
	1	아무 이유없이 울 때가 있다	
	공격성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사회적	2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2
	공격성	하루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3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사회적	위축1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1
	위축2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위축	위축3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1
	위축4	수줍어한다	
추	위축5	사람들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1
		담배 피우기	
오프라인	오프라인	술 마시기	5
	1	무단결석	
비행	1	다른사람 헐박하기	5
		성폭행이나 성희롱	
비행	오프라인	다른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5
	2	다른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뺨뜯기)	
비행	2	다른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5
		성관계	
비행	오프라인	다른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4
	3	다른사람 심하게 때리기	
온라인	온라인	가출	4
	1	돈을걸고 도박 게임하기	
비행	1	패싸움	2
	온라인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없이 사용하기	
비행	2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	2
	온라인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비행	2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2
	온라인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3	해킹/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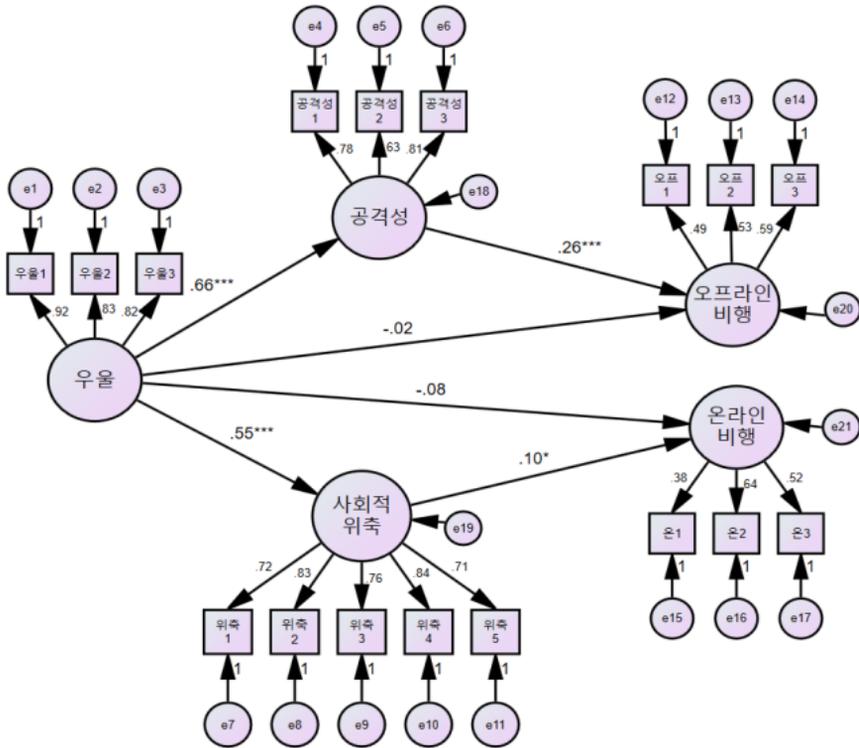
### 3. 구조모형분석

구조모형의 분석은 우울을 독립변수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변수로,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루어졌다. 우울이 온·오프라인비행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간 가구 소득과 성별을 통제변수로 하여 각각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를 통제하도록 설정하였다.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3>과 같이  $\chi^2=982.246(df=133)$ ,  $CFI=.940$ ,  $TLI=.914$ ,  $RMSEA=.052$ 으로 나타나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의 적합도

구분	$X^2(df)$	$p$	CFI	TLI	RMSEA
측정모형	806.776(109)	.000	0.949	0.929	0.052
구조모형	982.246(133)	.000	0.940	0.914	0.052
적합기준	-	>.05	>.90	>.90	<.08

구조모형의 요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청소년의 우울이 온라인비행( $\beta=-.08$ , n.s)과 오프라인비행( $\beta=-.02$ , n.s)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반면, 공격성( $\beta=.66$ ,  $p<.001$ )과 사회적 위축( $\beta=.55$ ,  $p<.001$ )과는 정(+ )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공격성은 온라인비행( $\beta=.13$ ,  $p<.01$ )과 오프라인비행( $\beta=.26$ ,  $p<.001$ )에 정(+ )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사회적 위축은 온라인 비행( $\beta=.10$ ,  $p<.05$ )과 정(+ )적상관을 보인 반면 오프라인비행( $\beta=-.08$ ,  $p<.05$ )과는 부(- )적상관을 보였다. 매개변수인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beta=-.02$ , n.s)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우울이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과 사회적위축의 매개변수의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모든 경로에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간접경로 유의미성 검증

	경로	간접효과	Z
우울 → 공격성 → 오프라인비행		0.173	5.372***
우울 → 공격성 → 온라인비행		0.088	2.805**
우울 → 사회적 위축 → 오프라인비행		-0.045	2.158*
우울 → 사회적 위축 → 온라인비행		0.053	2.525**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2]에서는 공격성에서 오프라인비행과 온라인비행으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표 5>와 같이 공격성이 오프라인비행과 온라인비행으로 가는 경로를 고정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간의 차이가 16.39로 3.84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집단간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우종필, 2012, p.251). 따라서 공격성이 오프라인비행과 온라인비행으로 가는 경로가 같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두 경로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비제약모형과 경로제약모형의 비교

Model	CMIN	DF	TLI	CFI	RMSEA	모형비교	
비제약모형	982.246	133	0.914	0.94	0.052	$\Delta DF$	$\Delta \chi^2$
경로제약모형	998.631	134	0.913	0.939	0.052	1	16.39***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과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우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우울이 공격성을 통해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울이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았으나 공격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이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기보다는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격성이 증가하여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모두 높아짐을 의미한다. 특히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 비행으로 가는 두 경로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격성이 온라인비행보다 오프라인비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이 온라인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지혜, 2013; 이성식, 전신현, 2012), 우울이 오프라인비행을 유발하거나 촉진시키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김태량, 최용민, 2016; 박우정, 정진복, 2015; 임선아, 2015)과 상이하나 우울이 공격성을 통해 오프라인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2011)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우울한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에서 교류하면서 정서적으로 지지받기를 원한다는 이성식, 전신현(2012)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며,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가면성 우울증이 내재되어 있다는 Krakowski(1970)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의 우울이 온·오프라인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우울과 온·오프라인비행 사이에 제 3의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비행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경로로 구분하여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두 경로 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낸 것은 중요한 발견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우울은 사회적 위축을 통해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한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어 온라인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며, 이는 청소년의 우울이 사회적 위축과 같이 내면화된 행동문제로 나타났을 경우, 청소년 스스로가 오프라인 상에서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피하고(Rubin, Coplan & Bower, 2009), 그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성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환경에 의존하게 되어 온라인비행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이성식, 2009)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우울이 사회적 위축을 예측하는 주요요인이며(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청소년 시기의 사회적 위축이 온라인비행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고은희, 김은정, 2014; 김단비, 2016)결과와도 일관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이 사회적 위축을 촉진시켜 온라인비행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청소년의 우울이 사회적 위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위축은 오프라인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이 오프라인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청소년의 소외감이 비행성향을 높이고, 비행성향이 비행행동을 일으킨다(김선남, 1994)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했던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나 청소년의 우울이 사회적 위축과 같이 내면화된 행동문제로 나타났을 경우, 청소년 스스로가 오프라인 상에서의 사

회적인 상호작용을 피하고(Rubin, Coplan & Bower, 2009), 스스로 자기 안으로 숨어드는 행동 특성을 가진다는 연구(Humel & Rubin, 1985)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공격성, 반사회성과 같은 우울증상이 아닌 과다수면이나 불면증과 같은 수면장애나 극심한 무력증, 권태감, 창피함 등의 정서적 증상으로 나타날 경우, 오프라인 상에서의 비행행동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체를 회피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자칫 사회적 위축이 오프라인비행을 감소시키는 것이라 오해할 소지가 있다. 한 예로, 윤달희(2009)의 종단연구에서 사이버일탈이 2년 뒤에 실제 일탈인 폭력 일탈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온라인비행 또한 오프라인비행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위축이 오프라인비행과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요청되며, 사회적 위축과 오프라인비행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제 3의 변수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우울이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통해 온·오프라인비행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우울은 청소년의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의 근원이 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을 경험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온라인비행이나 오프라인비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울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처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며, 성인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의 온·오프라인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우울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인 개입을 통해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기의 발달과 정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해마다 각급 학교를 통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스크리닝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선별된 위기 학생 및 학부모의 미동의로 인해 치료에 연계되지 못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향후 심리정서적 건강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더불어 심리적 위기 학생의 치료 의무화 등이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우울이 청소년의 온·오프라인비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행의 촉진요인으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중요성이 밝혀졌다. 따라서 청소년 온·오프라인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격성향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분노조절 프로그램이나 심성수련 프로그램 등의 집단상담과 더불어 스포츠와 같은 신체활동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지행동적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의 충동성과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승남, 2003; 장양자, 2000).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기 이전의

시기인 아동기 혹은 유아기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담 시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이전의 영향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음악치료나 미술치료와 같은 대체치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존감향상 프로그램이나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등의 집단상담을 통해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연습하고 사회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 상의 한계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한 척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사용된 척도가 측정변수들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변수들에 대해 좀 더 타당도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청소년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음주나 흡연,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행이나 성희롱, 도박 등 여러 종류의 오프라인비행을 모두 한꺼번에 분석하였다. 온라인비행 또한 불법 다운로드를 비롯하여 해킹이나 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 등 여러 종류의 온라인비행을 모두 한꺼번에 분석하였기 때문에 우울이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비행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상세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청소년의 온·오프라인비행에 미치는 우울의 영향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우울이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유발하는 동기로 작용할 때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온·오프라인비행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시기 및 방안마련을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우울 및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시간에 따른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청소년의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 간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이라는 매개변인만을 설정하였다. 청소년의 온·오프라인비행은 개인의 성향과 가족 및 학교 등의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우울과 온·오프라인비행 사이를 매개 또는 조절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경미 (2014). **학교폭력상담**. 서울: 대왕사.
- 고은희, 김은정 (2014). 청소년의 우울, 사회적 위축, 주의력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1**, 248-248.
- 고은희, 황성현 (2015). 청소년의 부정적인 심리요인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52**, 3-25.
- 곽금주 (1992). 공격영화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권석만 (2016). **이상심리학 시리즈2 우울증 침체와 절망의 늪**. 서울: 학지사.
- 권정민 (2016).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오프라인 비행 및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적응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금순, 김은미 (2015).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38**, 33-57.
- 김단비 (2016). 아동학대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기, 전지영, 이선주 (2008). 청소년의 여가제약과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5**(5), 157-179.
- 김선남 (1994).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정 (1999). 우울성향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 (2013).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이 인터넷 활용유형을 매개로 사이버비행과 현실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4**, 31-59.
- 김재휘, 김지호 (2002). 인터넷 일탈행동 및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3**(2), 91-110.
- 김태량, 최용민 (201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8**, 71-96.
- 김태순, 강차연 (2008). 고등학생의 우울과 공격성. **심리치료, 8**(1), 85-100.
- 김현수, 김현실 (1997). 한국비행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개인내적 특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8**(1), 57-69.
- 박기원 (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5**(1), 1-15.

- 박우정, 정진복 (2015). 실제-이상 자기개념 불일치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 -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 중심. **재활심리연구**, 22(2), 291-304.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 서미정 (2009).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와 비행, 우울, 불안 및 학업 성취감: 잠재성장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0(2), 141-167.
- 신명희, 서은희, 송수지, 김은경, 원영실, 노원경, 김정민, 강소연, 임호용 (2013).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혜정, 정의중, 이상아, 이향연, 박재연 (2014). 청소년의 우울,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7, 25-50.
- 심음철 (1999).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2), 24-34.
- 양승남 (2003). 비행 청소년을 위한 인지행동훈련의 효과: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원경 (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오운선 (2006). **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서울: 예영 B&P.
-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출판사.
- 윤달희 (2009).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요인이 사이버일탈을 통해 실제일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미, 지승희, 오인수, 송미경, 장재홍, 정제영, 조용선, 이정윤, 유형근, 이은경, 고경희, 오혜영, 이유미, 김승혜, 최희영 (2014).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문제연구소편**. 서울: 학지사.
-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체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 이성식 (2005). 청소년 사이버폭력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17(1), 125-145.
- 이성식 (2009). 초등학생들의 사이버비행에 있어서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인터넷사용 시간의 영향 작용: 세 이론의 검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77, 95-114.
- 이성식, 전신현 (2012). 인터넷사용, 일상긴장, 비행의 관계: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16(3), 293-318.
- 이은선 (2006). 청소년기 우울증상과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비행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영 (1988). **정신의학(각론)**.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 이혜은, 최정아 (2008).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개인 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15(1), 197-221.
- 임선아 (2015). 아동학대 피해가 심리사회적 적응을 매개하여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 가족소득의 조절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0(0), 85-108.
- 임진섭 (2009). 청소년비행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2SLS를 이용한 분석. **사회복지연구**, 40(4), 101-126.
- 장신재 (2014). 청소년의 공격성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27, 275-298.
- 장양자 (2000). 인지-행동적 집단상담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애, 이영자 (2014).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충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 **청소년 시설환경**, 12(4), 133-144.
- 정경미, 신민정, 강지현, 김은성 (2013).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의 하위 발달 경로 확인: 성장 모형을 적용한 2년간의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177-197.
- 정완 (2005). 사이버 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피해자학 연구**, 13(2), 329-359.
- 조주영, 오인수 (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유형변화 및 정서문제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5(4), 301-323.
- 조현철, 강석후 (2007).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항목묵음이 인과 모수의 검정과 적합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과학연구**, 17(3), 133-153.
- 조형정, 김명량, 조민희 (2017).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양서원.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21-148.
- 차민규 (2014). 학교에서의 긴장이 공격성을 매개로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법연구**, 4(1), 83-110.
- 천전웅 (2000). 아동중심 놀이치료가 시설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남서울대학교 디지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아 (2010). 초기 청소년기의 비행과 우울의 상호 인과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통한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59, 143-169.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패널 4차년도 User's Guide**.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태화, 황순택 (2015).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간의 종단적 관계 검증. **청소년학연구**, 22(11), 545-568.
- Bemporad, J. R. & Lee, K. W. (1988). Affective Depressive. In C. J. Kestenbaum

- & D. T. Williams (Eds.). *Handbook of clinical assess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p. 629-649).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Glasser, K. (1966).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21*, 565-574.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Humel, S. & Rubin, K. H. (1985). Children with peer relationship and social skill problems: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developmental issues. In G. J. Whitehurst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2*, 251-297. Greenwich, Connecticut: JAI Press.
- Kastner, J. W. (1998). Clinical Change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Group Therapy, 8*, 23-33.
- Kendall, P. C., Stark, K. D. & Adam, T. (1990). "Cognitive deficit or cognitive distortion in childhoo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255-270.
- Kovacs, M., Paulauskas, S. L., Gatsonis, C., & Richards, C. (1988). Depressive disorders in childhood: III. A longitudinal study of comorbidity and risk for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 205-217.
- Krakowski, A. J. (1970). Depressive reactions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somatics, 2*, 429-433.
- Rubin, K. H. & Coplan R. J. (2004). Paying attention to and not neglecting social withdrawal and social isolation. *Merrill-Palmer Q, 50*, 506-534.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2.
- Vieno, A., Kiesner, J., Patore, M. & Santinello, M. (2008). Antisocial behavior and depressive symptoms and concurrent relations. *Adolescence, 43*, 649-660.
- Wiesner, M. (2003). The longitudinal latent variable analysis of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delinquenc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2*, 633-645.
- Younger, A. J., & Daniels, T. M. (1992). Children's reasons for nominating their peers as withdrawn: Passive-withdrawal vs. active iso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55-960.

논문 접수: 2019년 2월 14일

논문 심사: 2019년 3월 9일

게재 승인: 2019년 3월 20일

<ABSTRACT>

**Effects of Adolescent Depression on  
Online and Offline Delinquency: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Nam, Eun Jung**(Sangmyung University)

**Bae, Hee Boon**(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dolescent depression, which is one of the major psychological problems of adolescent period, on online and offline delinquency mediated by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For this purpose, the fourth year panel data of the middle school first grade students was used and analyzed through structure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 that while adolescent depression does not have direct effect on online and offline delinquency, it has indirect effect through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That is, the higher the level of adolescent depression, the higher the level of aggression, which leads to increased number of online and offline delinquencies. It is also shown that the mediating effect is larger on offline delinquency compared to online delinquency. Also, the higher the level of depression,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withdrawal, which leads to increased online delinquency but decreased offline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specified the path through which adolescent depression is mediated by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to affect online and offline delinquency, and that it provided the baseline data to prevent online and offline delinquency of adolescents and to provide effective interventions.

★ **Key words:** Adolescent Depression, Online Delinquency, Offline Delinquency, Aggression, Social Withdrawal